



예거 르쿨트르, 새롭게 재해석한 듀오미터 쿼텀 루너 출시

- *듀오미터: 정확한 시간 측정에 대한 혁신적인 접근 방식*
- *처음으로 선보이는 스틸 소재의 듀오미터 모델과 새로운 케이스 디자인*
- *다양한 장식 마감이 돋보이는 딥 블루 다이얼*

2007 년, 획기적인 듀오미터 콘셉트를 기반으로 한 최초의 듀오미터 크로노그래프가 출시된 이후 이 시스템은 다른 컴플리케이션과 함께 사용되었으며, 매우 정확한 시간 측정이 돋보이는 기술적으로 발전된 시계 라인을 탄생시켰습니다. 2024 년, 예거 르쿨트르는 듀오미터 쿼텀 루너(문페이스)를 재해석한 새로운 듀오미터 타임피스를 선보입니다. 처음으로 출시되는 스틸 소재의 듀오미터 모델은 눈길을 사로잡는 블루 다이얼과 새로운 케이스를 통해 시대를 초월하며 고유한 디자인에 현대적인 분위기를 더해줍니다.

완벽한 동력 공급 보장

예거 르쿨트르의 엔지니어와 워치메이커들은 2007 년 듀오미터를 개발하면서 정교한 기계식 시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컴플리케이션이 작동하려면 배럴에서 기어 트레인을 거쳐 이스케이프먼트까지 공급되는 동력을 일부 끌어와야 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이는 일정한 동력 공급 유지를 방해하여 시계의 정확성을 저하시킵니다.

워치메이커들은 초창기부터 메종의 독창성을 입증하기 위해 19 세기에 이미 해당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했습니다. 이로써 1881 년, 포켓 워치에 두 개의 배럴이 장착된 칼리버 19/20RMSMI 를 탑재하여 출시하였습니다. 그러나 더블 배럴 칼리버의 경우, 두 배럴 모두 시간 측정과 컴플리케이션 작동에 사용되는 단일 기어 트레인에 동력을 공급하기 때문에 여전히 본질적인 문제는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기 칼리버는 매뉴팩처의 21 세기 엔지니어와 워치메이커에게 혁신적인 듀오미터 콘셉트의 출발점을 제공했습니다. 동력 공급을 두 개의 '줄기'(시간 측정용 배럴과 기어 트레인,



컴플리케이션용 배럴과 기어 트레인을 단일 이스케이프먼트에 연결)로 효과적으로 분리한 듀오미터 시스템은 컴플리케이션의 작동 여부에 상관 없이 일정한 동력 공급을 보장합니다.

칼리버의 정확성을 강조한 듀오미터 쿼텀 루너 다이얼의 특징은 6시 방향의 서브 다이얼에서 연속해서 회전하는 *점핑 세컨드* 핸드입니다. 회전당 6번의 '점프'를 통해 1초에 한 번 회전하는 점핑 세컨드 핸드는 60초에 한 번 회전하는 '기본' 세컨드 핸드와 달리 정확히 1/6초 간격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디자인에 대한 정밀한 접근

예거 르쿨트르는 시간 측정뿐만 아니라 디자인과 마감의 아름다움에도 정확성을 추구합니다. 듀오미터 쿼텀 루너의 딥 블루 다이얼에 장식된 길고 매우 가는 핸즈와 세 개의 서브 다이얼이 역피라미드 모양을 형성하는 대칭적인 레이아웃 모든 듀오미터 시계의 시그니처입니다. 3시 방향의 서브 다이얼에는 아라비아 숫자로 시간이 표시됩니다. 9시 방향 서브 다이얼에는 날짜가 핸즈로 표시되며, 푸른 하늘을 배경으로 문페이스가 세팅되어 있습니다. *점핑 세컨드* 서브 다이얼은 6시 방향에 자리잡고 있습니다.

다이얼은 시각적인 흥미와 대비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마감 장식의 여러 섹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메인 오판린 다이얼은 은은하게 빛나며 장식 기법 특유의 시각적 깊이감을 선사합니다. 다이얼의 하단 부분은 선레이 브러싱 처리되어 있으며, 두 개의 파워리저브 인디케이터는 오판린 아치 형태를 통해 선레이 브러싱 처리된 배경과의 대비가 돋보입니다.

역사적인 타임피스에 등장했던 섹터 다이얼의 디자인에서 영감을 받아 각 다이얼을 둘러싼 넓은 링은 선레이 브러싱 처리되었습니다. 다이얼 둘레의 볼록한 곡선은 시계를 보호하는 글래스 박스 크리스탈과 유려하게 어우러집니다. 서브 다이얼은 표면보다 살짝 들어가 있어 시각적 깊이감을 높여 줍니다.

정확성을 추구하는 메종의 접근 방식은 투명한 크리스탈 케이스백 아래에서 전체를 확인할 수 있는 무브먼트 마감에서도 드러납니다. 칼리버의 대부분은 디자인적 목적과 기술적인 목적을 모두 충족하는 오픈워크 방식으로 제공됩니다. 기술적으로는 워치메이커가 374개의 구성 요소 중 일부를 더 쉽게 세팅 및 조립할 수 있으며, 디자인적으로는 메커니즘을 자세히 감상할 수 있게 됩니다.



무브먼트 전체에 시각적 통일성을 선사하는 브릿지는 선레이 제네바 스트라이프로 장식되었습니다. 부품은 하나씩 세공되어야 하며, 무브먼트 조립 후 레귤레이터 중앙에서 칼리버 가장자리까지 모든 선이 균일한 간격으로 완벽하게 정렬되어 방사형으로 뻗어나가야 하기 때문에 탁월한 정확성이 요구되는 까다로운 기술입니다.

새로운 듀오미터 케이스: 전통에서 영감을 받은 현대적인 우아함

예거 르쿨트르는 2024 년 세 가지 새로운 듀오미터 모델 출시를 기념하여 컬렉션에 장착될 새로운 케이스를 디자인했습니다. 19 세기, 메종에서 제작한 *샤보네트* 포켓 위치를 현대적으로 해석한 시계의 둥근 실루엣은 보기에 매력적일 뿐만 아니라 촉감도 뛰어납니다. (프랑스어 *샤보네트(savonette)*는 손바닥에 짤 수 있는 둥근 형태의 작은 비누를 의미합니다.) 볼록한 크리스탈과 세련된 원형 베젤을 갖춘 새로운 듀오미터 케이스는 이러한 단어의 정의를 매우 잘 표현합니다. 크라운 역시 깊고 둥근 톱니 모양으로 새롭게 디자인되어 시계를 다루는 즐거움을 선사합니다. 오직 폴리싱 처리된 러그 가장자리에서만 또렷하고 날렵한 라인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직경 42.5mm 의 케이스는 34 개의 개별 부품으로 구성된 정교한 구조를 갖추고 있으며, 러그는 통합형이 아닌 스크류로 고정되어 다양한 마감 기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폴리싱과 브러싱, 마이크로 블라스팅 마감이 혼합된 표면은 손목 움직임에 따라 매혹적인 빛의 유희를 만들어 냅니다.

블루 다이얼과 스틸 케이스를 갖춘 듀오미터 쿼텀 루너의 새로운 재해석은 기술적으로 정교한 시계에 더없이 현대적인 분위기를 더해줍니다. 예거 르쿨트르의 끊임없는 정확성 추구와 파인 위치메이킹 전통에 대한 깊은 존경을 바탕으로 한 메종의 혁신 정신을 완벽하게 구현한 모델입니다.

상세 정보

듀오미터 쿼텀 루너

케이스: 스틸

크기: 직경 42.5mm x 두께 13.05mm

칼리버: 매뉴얼 와인딩 예거 르쿨트르 칼리버 381



기능: 시, 분, 센트럴 세컨즈, 1/6 초, 문페이지, 날짜, 2 개의 파워 리저브

파워 리저브: 각 배럴당 50 시간

앞면 다이얼: 블루 오팔린

방수: 5 바(bar)

스트랩: 악어 가죽

제품 번호: Q604848J

예거 르쿨트르 소개 – 워치메이커의 워치메이커™

1833 년부터 혁신과 창의성에 대한 끊임없는 열정과 발레드주의 평화로운 자연 환경에서 영감을 받은 예거 르쿨트르는 컴플리케이션에 대한 전문성과 메커니즘의 정확성으로 독보적인 워치메이커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워치메이커의 워치메이커™로 알려진 매뉴팩처는 1,400 개 이상의 다양한 칼리버 제작을 통해 독창적인 정신을 끊임없이 표현해왔으며 430 여 개 이상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랑 메종의 워치메이커는 190 년 동안 축적된 전문 지식과 열정을 바탕으로 정밀한 최첨단 메커니즘을 디자인, 제작, 마감, 장식하며 과거와 미래를 연결하고 언제나 시간의 흐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180 여 개의 기술력이 한 지붕 아래 모인 매뉴팩처에서 기술적 독창성과 미적 아름다움, 절제된 세련미가 결합된 파인 워치메이킹 작품을 탄생시킵니다.

jaeger-lecoultre.com